

국내입양모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안재진¹⁾

요약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설명하는 기존의 모형에 입양관련 변수들을 덧붙여서 입양모들이 경험하는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밝혀내고자 하였다. 분석은 본 연구자의 박사논문 자료를 이용하였는데, 조사자료는 전국의 대표적인 3개 입양기관 및 그 지부들을 통해 2006년 4월부터 8월까지 5개월에 걸쳐 수집되었으며, 전체 279사례 중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연령이 만0세~2세인 240 가정의 입양모를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위계적 회귀분석모형을 통해 모형에 포함된 여러 요인들 간의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본 결과, 국내입양모들의 양육스트레스를 예측하는 요인으로는 입양과 관련된 요인보다는 모형에 포함된 부모요인, 아동요인, 가족체계요인이 더 유의미한 예측인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입양모의 양육스트레스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변수로는 입양모의 연령, 자아존중감, 가족 및 친지들로부터 얻는 사회적 지지가 있었으며, 아동의 성별은 한계적으로 유의미한(marginally significant)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입양관련 요인을 제외한 모형이 입양모들의 양육스트레스를 설명하는데 더 적합할 것으로 보이며, 입양관련 요인의 제외한 모형의 설명력은 21% 정도였다.

주제어: 입양, 입양모, 양육스트레스

I.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아동의 탄생 혹은 입양은 가족에게 많은 변화를 가져온다. 부모로의 전환은

1) 육아정책개발센터 부연구위원

자녀양육과 관련된 많은 스트레스를 수반하며, 이러한 자녀양육 스트레스는 자녀를 돌보는 일과 관련된 신체적 요구, 부부관계에서의 긴장, 정서적 부담, 사회적·재정적인 기회비용과 제한이 증가함으로써 나타난다(전춘애, 박성연, 1998).

입양부모의 경우에는 아동의 입양사실로 인해 일반 부모들보다 더 많은 양육 스트레스를 경험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특히 9개월 동안 임신기간을 거치는 출산부모와 달리, 입양부모들은 ‘갑작스런 부모됨의 부담(burden of instant parenthood)’을 떠안게 되며, 이러한 새로운 부모역할에 대한 적응은 입양부모들이 경험하는 주요한 스트레스이기도 하다(Barth & Berry, 1988; Bird, Peterson & Miller, 2002; McGlone, Santos, Kazama, Fong & Mueller, 2002). 또한 출산을 통해 부모가 된 이들과 달리 입양부모는 아동의 기질이나 유전적 특성에 대해 전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자녀에 대해 비합리적인 기대를 갖거나, 자녀의 유전적 특성에 대해 불안과 불확실성을 경험할 수 있다. 많은 경우 확대가족을 비롯한 주위 사람들로 부터 축복받는 사건인 출산과 달리, 입양부모들은 입양 전에 주위 사람들의 우려와 만류, 반대 등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것은 입양부모들의 스트레스를 증폭시킬 수 있다. 이에 덧붙여, 공개입양부모들의 경우에는 입양사실을 밝힘으로써, 사회적 낙인이나 주위 사람들의 편견 등에 대처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된다. 실제로, Gaddis(1994)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입양부모들은 비입양부모들에 비해 어떻게 부모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덜 편안함을 느끼며, 아이들과 함께 하는데 더 문제를 가지게 된다고 보고하고 있다(윤현선, 2002).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는 국내입양부모들이 경험하는 양육스트레스에 주목한다.

입양부모들의 양육스트레스에는 일반적인 부모들이 경험하는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외에, 입양과 관련된 요인들에 의한 영향 즉, 입양부모로서 겪는 고유한 경험들에 의한 요인이 있을 것이라고 추측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설명하는 기존의 모형에 입양관련 변수들을 추가하여 입양부모들이 경험하는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밝혀내고자 시도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입양부모들을 위한 사후 서비스 제공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입양부모들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둘째, 부모의 개인적 특성, 아동특성, 가족체계요인들, 입양관련 요인들이 입양부모들의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II. 이론적 배경

1. 선행연구 검토

부모가 경험하는 양육 스트레스의 중요성은 기존 연구를 통해 명백히 밝혀져 있다. 자녀양육 스트레스는 부모기로의 전환기에 누구나 경험하고 예측할 수 있는 스트레스이므로 다른 주요한 생활사건에 비하면 사소한 스트레스이지만, 매일 반복하여 경험하고 누적되므로 부모 자신의 복지에 영향을 미침은 물론, 부모의 자녀양육 행동에도 영향을 미쳐 결과적으로 아동발달에도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전춘애, 박성연, 1998).

실제로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는 어머니의 결혼만족도와 부모효능감을 매개로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전춘애, 박성연, 1996; 신숙재, 정문자, 1998),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양육행동을 매개로 유아의 사회적 적응의 중요한 결정요소가 되고(Crnic & Greenberg, 1990), 나아가 가족의 복지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이재연, 최영희, 1990, 유우영, 이숙, 1998). 또한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는 유아의 사회성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박정희, 장영애, 2004), 어머니의 교육수준과 더불어 학령기 아동의 자아존중감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최정미, 우희정, 2004). 심지어 저위험 인구집단(low-risk population)에서도 아동의 생후 첫 1년 동안 어머니가 경험하는 양육 스트레스는 아동의 외현화 문제와 낮은 수준의 자기주장을 예측하며(Creasey & Jarvis, 1994; Mulsow, Caldera, Pursley, Reifman & Huston, 2002), 보다 많은 양육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어머니일수록, 자녀와 덜 안정된 애착관계를 보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Hadadian & Merbler, 1996; Mulsow, Caldera, Pursley, Reifman & Huston, 2002).

이처럼 양육 스트레스가 아동의 복지, 더 나아가 가족의 복지에 미치는 중요성과 입양부모가 양육 스트레스에 대해 취약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입양부모들의 양육 스트레스에 대한 고찰은 입양가족들을 위한 서비스 개발에 중요한 함의를 지닐 것이다.

그러나 많은 연구자들이 양육스트레스의 결과를 탐색하는데 주력해온 반면, 특정 부모가 양육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정도를 예측하는 요인들을 밝힌 연구들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Muslow, Caldera, Pursley, Reifman & Huston, 2002). 특히 국내입양부모를 대상으로 양육스트레스를 탐색한 연구는 권지성과 안재진(2005)의 연구가 유일하나, 이마저도 공개입양부모들로 대상이 한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적은 사례수로 인해 변수간의 상관관계만을 살펴본 한계를 가지고 있다. 권지성과 안재진(2005)의 연구에서는 아동의 입양당시 연령에 따라 입양부모들의 양육스트레스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연장아(입양당시 연령이 만12개월 이상)를 입양한 부모들의 양육스트레스가 만12개월 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부모들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았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Crnic과 Acevedo(1995)의 선행연구에 기반하여, 입양부모들의 양육스트레스를 예측하는 요인을 설명하기 위한 모형을 구성하고 이를 검증해보고자 한다.

2. 연구모형의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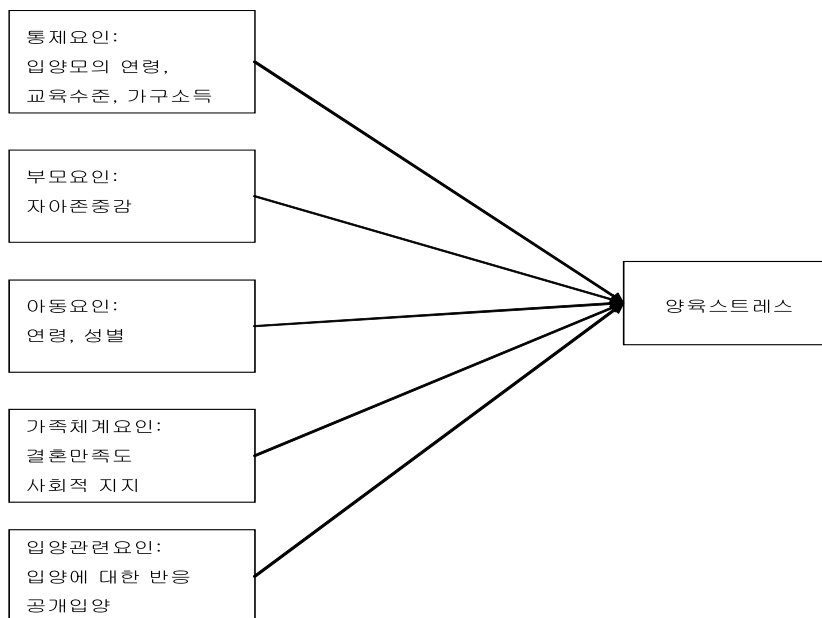
Crnic과 Acevedo(1995)는 부모요인과 아동요인, 그리고 가족체계요인이 부모의 양육과 관련된 스트레스 인식에 직접, 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력을 포함한 모형을 제안한 바 있다. 기존 연구에서 논의되었던 부모요인은 자존감, 기분(mood), 신념과 같은 부모의 개인적 특성을 포함하며, 아동요인은 아동의 기질, 연령, 발달단계, 성별을 포함한다. 가족체계요인은 소득과 결혼관계의 질, 그리고 사회적 지지의 정도를 포함한다(Muslow, Caldera, Pursley, Reifman & Huston, 2002).

본 연구에서는 부모요인으로 자존감, 아동의 연령과 성별을 포함시켰으며, 가족체계요인으로는 결혼적응도와 사회적 지지를 포함하였다. 아동의 발달단계별로 양육스트레스를 예측하는 요인들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Levy-Shiff, Dimitrovsky, Shulman & Har-Even, 1998; Muslow, Caldera, Pursley, Reifman & Huston, 2002), 아동의 연령이 영아기에 해당하는(만0세~2세) 입양부모들로 연구대상을 한정하였다. 본 연구는 2차 자료를 활용한 연구이므로, 모형에 포함된 주요 변수들은 자료에 포함된 것들로 한정되었다. 따라서 ‘아동의 기질’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모형에 포함되지 못했다.

한편, Crinic & Acevedo(1995)가 제안한 모형은 일반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제안된 모형이므로, 본 연구의 대상이 입양부모인 점을 고려하여, 입양 관련 요인들 중 양육스트레스와 관련될 것으로 여겨지는 요인들을 일부 모형에 포함시켰다. 여기에는 입양에 대한 주위 사람들의 반대와 입양공개여부가 포함된다. 선행연구를 통해 입양부모의 양육스트레스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연장아 입양여부는 연구대상 아동들 중 연장아 입양사례가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나(2.1%) 모형에 주요 변수로 투입되지 않았다. 또한 모형에 직접 포함되지는 않지만 통제를 위해 입양모의 연령, 교육수준 및 가구소득을 통제요인으로 포함시켰다.

따라서 본 연구의 변인은 부모요인, 아동요인, 가족체계요인, 입양관련요인과 통제요인의 5개 군으로 묶을 수 있으며, 각각의 변수군을 순차적으로 투입하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각 변수군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연구모형은 다음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Ⅲ. 연구방법

1. 연구자료 및 분석방법

본 연구의 자료는 본 연구자의 박사학위논문 자료를 활용하여 재분석한 것이다. 그러나 논문에 사용된 변수의 구성과 연구모형이 박사학위논문과 상이하므로, 학위논문의 요약본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원자료의 수집은 비확률표집방법을 사용하여, 국내입양의 70% 이상을 담당하는 주요 입양기관 세 곳을 통해 이루어졌다. 대한사회복지회, 동방사회복지회, 홀트아동복지회의 서울 및 지방사무소(홀트 대구사무소 제외)를 통해 전국적인 표집이 이루어졌으며, 입양모가 직접 설문지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다. 입양가족과의 접촉은 엄격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입양기관의 사회복지사들의 도움을 얻어 설문지의 배포와 수거가 이루어졌다.

장애아동을 입양한 부모들은 그 수가 너무 적어 별도의 분석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에 표집에서 제외하였다. 조사는 2006년 4월부터 8월까지 5개월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우편, 방문(부모모임 및 개인상담 포함), 이메일 등 다양한 방법이 사용되었다. 최종 수거된 294부의 설문지 중, 입양부가 답했거나, 응답이 불성실한 설문지 15부를 제외한 279명의 자료가 수집되었다. 이 중 본 연구에서는 원자료의 연구대상 가운데 아동의 연령이 만0세~2세인 240 가정의 입양모를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시 결측자료는 사례별 제거(listwise deletion)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연구모형에 포함된 5개의 변수군을 차례로 투입하는 위계적 다중회귀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통계분석은 SPSS 1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이루어졌다.

2. 변수의 측정

연구에 사용된 각 변인들의 측정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다.

가. 독립변인

1) 입양모의 자아존중감

입양모의 자아존중감은 로젠버그 자아존중감 척도(RSE)를 통해 측정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균(1999)의 연구에서 번역, 사용된 문항을 사용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 .821$ 로 나타났다. 척도는 10문항으로 이루어진 리커트 4점 척도로 가능한 응답범위는 10점~40점이다. 반대의 의미를 가진 문항은 역채점하여, 척도의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2) 입양아동의 연령과 성별

아동의 연령은 아동이 태어난 달을 기준으로 한 만 월령을 측정하였으며, 성별은 남아=0, 여아=1로 코딩하였다.

3) 결혼적응도

결혼적응도는 로크-월러스의 결혼적응검사(Lock-Wallace Marital Adjustment Test)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15문항으로 이루어진 이 검사는 문항에 주어진 가중치에 따라 채점하며, 본 연구에서는 관련 분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타당도 검사 결과, 문화적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된 문항(“여가시간에 본인과 배우자가 외출을 선호하는가 아니면 집에 있는 것을 선호하는가”)을 제외한 14문항을 사용하였다. 가능한 점수의 범위는 0점~148점이다. 본 연구에서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 .737$ 로 나타났다.

4)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는 여러 차원과 출처에 따라 구분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박지원(1984)의 사회적 지지 척도를 바탕으로 개발되어 오승환(2000)의 연구에서 사용된 사회적 지지 척도를 사용하여 입양모가 인식하는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였다. 척도는 정서적, 정보적, 도구적 지지의 차원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여러 출처의 사회적 지지 가운데 아동의 양육에 보다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족 및 친지들의 지지로 사회적 지지의 출처를 한정하였다. 원척도는 1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척도의 문항이 너무 많고, 설문지가 너무 길어 조사를 진행하기에 어려움이 많다는 입양기관의 입장을 반영하여, 오승환(2000)의 연구에서 가장 신뢰도가 낮게 나타난 4문항을 제외한 12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며, 가능한

응답범위는 12점~60점이다. 본 연구에서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47$ 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5) 입양에 대한 반응

입양결정에 대한 가족들의 반응은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다. 1점은 '매우 반대'를, 5점은 '매우 환영'을 의미한다.

6) 공개입양여부

공개입양 여부는 아동의 입양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의 범위에 의해 측정했다. 원칙적으로 공개입양은 주변사람들 뿐 아니라 입양아동에게 입양사실을 알리는 것을 의미하지만, 조사대상 아동들의 연령이 대부분 매우 어리다는 점을 감안해,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입양인지를 공개입양의 조건으로 포함하지 않았다. 입양의 공개정도는 세 가지 수준에서 측정되었는데, 비밀입양은 부모와 직계가족만 입양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 제한공개입양은 입양사실을 알고 있는 범위가 몇몇 가까운 친구나 친지들까지 포함하는 경우, 공개입양은 주변사람들에게 입양사실을 숨기지 않는 경우로 측정하였다. 그러나 공개입양의 본질적 의미에 비추어볼 때, 제한공개입양은 사실상 공개입양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실제 분석에서는 공개입양을 제외한 나머지 두 범주를 비공개입양으로 묶어 분석을 실시하였다.

나. 종속변인

종속변인인 양육스트레스는 Abidin의 양육스트레스 척도 단축형(Parenting Stress Index/Short-Form)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원척도는 3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예비조사 결과, 설문문항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응답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아, 조사를 실제 진행해준 입양기관의 입장을 반영하여 척도의 문항수를 줄이는 것이 불가피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관련분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타당도 검사를 실시하여, 가장 타당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14문항만을 선택하여 사용하였다. 양육스트레스 척도는 5점 리커트 척도로 높은 점수를 받을수록 양육스트레스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736$ 으로 나타났다.

다. 통제변인

입양모의 연령은 만 연령을 측정하였으며, 입양모의 교육수준은 ‘무학’, ‘초졸’, ‘중졸’, ‘고졸’, ‘대졸 이상’의 5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월소득은 월평균 가구소득을 만원 단위로 보고하도록 하였다.

IV.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변인들의 특성

연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 및 분석에 포함된 주요 변인들의 특성은 <표 1>과 같다. 입양모의 연령분포는 20대부터 50대까지 폭넓은 분포를 보이고 있었으며, 평균연령은 약 38세로 입양아동의 평균연령(약 14개월)에 비추어볼 때 상당히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부분의 입양부모들이 입양을 하기 전 오랜 기간 동안 불임시술을 시도하거나 혹은 친생자녀를 어느 정도 키운 후에 입양을 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입양모의 교육수준은 대부분이 고졸 이상으로 비교적 높은 편이었으며, 가구월소득은 평균 400만원 가량이나, 높은 표준편차에서 알 수 있듯이 70만원부터 5,500만원까지 매우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입양가정의 중위소득은 300만원이었다. 입양모의 자아존중감 평균은 30.62점으로 나타났으며, 입양아동의 연령은 만 0세(12개월 미만)인 아동이 절반 정도를 차지했다. 입양아동의 성별은 여아가 70% 가량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는데, 이는 여아를 선호하는 국내입양의 경향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입양모가 지각하는 가족의 사회적 지지수준은 응답범위인 12점~60점 가운데 51.25점으로 나타나, 상당히 높은 수준인 것을 알 수 있다. 분석에 포함된 입양가정의 약 3분의 1 가량이 공개입양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입양에 대한 가족들의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회귀분석에 앞서, 자료분포의 정규성을 확인하기 위해 각 변수의 왜도와 첨도값을 살펴본 결과(왜도와 첨도의 절대값 3과 10을 기준으로 판단), 가구월소득이 정규성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구월소득

변수는 로그변환을 통해 정규분포에 가까운 변수로 만들어 분석에 투입하였다. 한편, 변수간의 다중공선성은 VIF값을 통해 살펴보았는데(VIF값 10 기준), 모든 변수의 VIF값이 1.5를 넘지 않아, 변수 간의 다중공선성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변인들의 특성

변수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왜도(표준오차)	첨도(표준오차)
	입양모 연령	237(100.0)	38.45	5.25	.342(.158)	-.288(.315)
	20대(26-29)	6(2.5)				
	30대(30-39)	137(57.8)				
	40대(40-49)	88(37.1)				
	50대(50-53)	6(2.5)				
	입양모 교육수준	240(100.0)	4.45	.58	-.744(.157)	1.003(.313)
인구학적 특성	무학(1)	0(0.0)				
	초졸(2)	2(0.8)				
	중졸(3)	5(2.1)				
	고졸(4)	117(48.8)				
	대졸이상(5)	116(48.3)				
	가구월소득(만원)	238(100.0)	399.05	527.40	6.917(.158)	54.778(.314)
	가구월소득(로그변환)	238(100.0)	2.50	.24	1.634(.158)	6.475(.314)
부모특성	자아존중감	237(100.0)	30.62	3.82	.034(.158)	.086(.315)
	아동연령(월령)	240(100.0)	13.67	9.26	.552(.157)	-.987(.313)
아동특성	만0세(12개월 미만)	129(53.8)				
	만1세(12-23개월)	58(24.2)				
	만2세(24-35개월)	53(22.1)				
	아동성별	237(100.0)	.71	.45	-.948(.158)	-1.110(.315)
	남아(0)	68(28.7)				
	여아(1)	169(71.3)				
가족체계 특성	결혼적응도	216(100.0)	101.93	22.80	-.659(.166)	.484(.330)
	사회적 지지	217(100.0)	51.25	8.86	-1.540(.165)	2.740(.329)
	공개입양여부	240(100.0)	.35	.48	.614(.157)	-1.637(.313)
	공개입양(1)	85(35.4)				
	비공개입양(0)	155(64.6)				
	입양에 대한 가족반응	239(100.0)	4.08	.88	-.966(.157)	.990(.314)
입양관련 특성	매우 반대(1)	3(1.3)				
	대체로 반대(2)	10(4.2)				
	반반정도(3)	36(15.1)				
	대체로 환영(4)	107(44.8)				
	매우 환영(5)	83(34.7)				
양육스트레스	양육스트레스	240(100.0)	26.20	6.23	.253(.157)	-.153(.313)

2.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영아기 자녀를 둔 입양부모들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 보기 위해 연구모형에 기반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변인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모형5
		β	β	β	β	β
통제 변수	모연령	.174*	.179*	.169*	.138*	.145*
	모교육수준	.031	.065	.085	.083	.075
	가구월소득 (로그)	.006	.075	.075	.062	.066
부모 요인	모의 자아존중감		-.338***	-.344***	-.258**	-.266**
아동 요인	아동연령			.079	.079	.068
	아동성별			-.130+	-.118+	-.108
가족 체계 요인	결혼적응도				-.118	-.097
	사회적 지지				-.164*	-.153*
입양 관련 요인	공개입양 여부					-.065
	입양결정에 대한 가족들의 반응					-.069
F-test		F(3, 186)=1.89	F(4, 185)=7.36***	F(6, 183)=5.86***	F(8, 181)=5.88***	F(10, 179)=4.88***
R2 (수정된 R2)		.030(.014)	.137(.119)	.161(.134)	.206(.171)	.214(.170)
ΔR^2		-	.108	.024	.045	.008

+ p<.10, * p<.05, ** p<.01, *** p<.001

<표 2>에 나타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모형 1은 통제변수만을 투입한 모형으로 통제변수들 가운데 입양모의 연령만이 양육스트레스의 유의미한 예측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모형의 설명력과 모형에 대한 F 검정결과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이 모형은 입양모의 양육스트레스를 설명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입양모의 양육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다른 변수들이 추가적으로 투입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모형2는 모형1에 부모요인인 입양모의 자아존중감을 첨가한 것으로, 모의 자아존중감은 양육

스트레스와 부적인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입양모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는 낮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모의 자아존중감을 투입함으로써, 모형의 설명력은 10% 이상 증가하였으며, F 검증값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3은 모형2에 아동요인인 입양아동의 성별과 연령(만 연령)을 추가한 것인데, 아동의 연령은 입양모의 양육스트레스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연령을 월령으로 투입하거나 더미변수로 처리하여 투입해도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이는 아동들이 모두 같은 발달단계(영아기)에 속하는 아동들이기 때문에 나온 결과로 여겨진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는 만 12개월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들에 비해, 만 13개월~36개월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들의 스트레스 수준이 더 높다는 선행연구(이지원, 2003)와는 일치하지 않는 결과이다. 성별은 입양모의 양육스트레스에 한계적으로 유의미한(marginally significant)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아동이 여아인 경우 남아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육스트레스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아동요인을 추가함으로써 얻어지는 설명력의 증가는 2.4%에 불과했다. 모형4는 모형3에 가족체계요인을 덧붙인 것으로, 가족체계요인 중 가족 및 친지들로부터 받는 사회적 지지만이 입양모의 양육스트레스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및 친지들로부터 받는 사회적 지지는 입양모의 양육스트레스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입양모가 인식하는 사회적 지지의 수준이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는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모형4의 설명력은 약 21% 정도이다. 마지막으로 모형5는 Crinic과 Acevedo(1995)가 제시한 모형인 모형4에 입양과 관련된 요인을 덧붙인 것으로, 입양과 관련된 요인들은 입양모의 양육스트레스를 설명하는데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모형의 R²값 증가분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 모형5의 설명력은 모형4에 비해 불과 0.8%만이 증가했으며, 모형의 간명성을 고려한 수정된 R²값은 오히려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입양모의 양육스트레스를 설명하기 위한 모형으로는 모형4가 모형5보다 더 적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모형4의 설명력도 21% 밖에 되지 않아, 본 모형이 입양부모의 양육스트레스를 설명하기에 다소 한계가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여기에는 아동의 연령이 비슷해서 연령의 영향력이 유의미하지 않았다는 점, 중요한 변수인 아동의 기질이 자료의 한계상 모형에서 제외되었다는 점 등이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입양부모로서의 고유한 경험이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었

으나, 실제 자료에서는 그러한 영향을 발견할 수 없었다. 후속 연구를 통해 입양부모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여겨지는 주요 변인들을 더 탐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영아를 양육하고 있는 국내입양부모들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밝혀내고, 이를 바탕으로 입양부모들을 위한 사후 서비스를 제안하고자 한다.

연구결과를 통해 국내입양부모들의 양육스트레스를 예측하는 요인으로는 입양과 관련된 요인보다는 일반 인구집단의 양육스트레스를 설명하는 요인들이 더 유의미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입양관련 요인들은 국내 입양부모의 양육스트레스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반면, Crinic과 Acevedo(1995)가 제시한 모형의 변인들 가운데, 부모요인, 아동요인, 가족체계요인이 모두 입양부모의 양육스트레스에 (한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들 변인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입양모의 자아존중감, 아동의 성별, 가족 및 친지들로부터 얻는 사회적 지지가 입양모가 인식하는 양육스트레스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적절한 입양 관련 변인들이 모형에 포함되지 않아서 발생하는 모형식별오차(model specification error) 때문일 수 있다. 따라서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는 보다 다양한 입양관련 변수들을 탐색해볼 필요가 있다.

아동의 성별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은 기존 연구와 일치한다. 취학전 아동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장영애(2003)의 연구에서도 아동의 성별이 여아인 경우,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유의미하게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입양모의 자아존중감은 양육스트레스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는 자아존중감이 개인적 자원으로서, 스트레스에 대한 완충 작용을 하기 때문일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사회적 지지는 특히 많은 연구에서 양육스트레스를 완화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주목받아왔으며(박정희, 장영희, 2004; 신숙재, 정문자, 1998; 유우영,

이숙, 1998; 유우영, 최진아, 이숙, 1998; Mulsow, Caldera, Pursley, Reifman & Huston, 2002; Crnic & Greenberg, 1990), 입양모의 자아존중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개입의 지점을 시사한다. 특히 입양부모들의 경우, 입양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확대가족의 반대에 부딪히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사회적 지지의 원천인 확대가족으로부터 양육과 관련된 지원을 얻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이들이 경험하는 양육 관련 사회적 지지는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권지성, 안재진, 2005). 문제는 이러한 가족들로부터의 지지를 확보하기가 용이하지 않을 때, 이들을 대체할 수 있을만한 지지의 출처를 확보할 수 있는냐이다.

기존의 많은 입양연구들은 입양부모들을 위한 중요한 지지의 출처로 다른 입양부모들과 입양기관을 이야기한다. 입양으로 인한 어려움에 직면한 부모들에게 입양부모들로 이루어진 지지집단은 정보와 교육, 지지와 인정(validation)을 제공하는 훌륭한 출처가 되며(Smith & Howard, 1991), 입양가족 내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자신들만 경험하는 문제가 아니며, 충분히 해결가능한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을 제공한다(Berry, 1990). 그러나 이러한 지지출처는 국내입양부모의 적응을 설명하는데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안재진, 2008), 이는 비밀입양이 아직도 다수를 차지하는 국내입양의 특성상 대부분의 입양부모들이 입양기관이나 다른 입양부모들과의 접촉 자체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들을 통해 사회적 지지를 얻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입양부모들의 사회적 지지를 강화하기 위해, 지지의 출처를 가족과 친구 같은 비공식적인 출처에서 입양기관 및 다른 입양부모들로까지 확대하고, 입양부모들의 자조집단을 강화함으로써, 입양부모들이 공통으로 경험하는 문제와 그에 대한 해결책을 공유하도록 격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입양기관을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공개입양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사후서비스 제공과 지지집단 강화에 힘써야 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공개입양부모들 뿐 아니라 비공개입양부모들에게도 사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비밀보장과 관련된 여러 장치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본 연구에서 입양관련 변인들은 국내입양부모들의 양육스트레스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향후 더 많은 탐색적 연구를 통해서 이 부분을 밝혀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 권지성, 안재진(2005). 국내 공개입양부모의 양육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에 관한 연구. *아동권리연구*, 9(3), 393-412.
- 박정희, 장영애(2004). 유아의 사회성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원에 관한 연구. *아동권리연구*, 8(2), 325-351.
- 신숙재, 정문자(1998).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사회적 지원과 부모효능감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19(1), 27-42.
- 안재진(2008). *A Study on the Early Adaptation of Korean Adoptive Families*.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유우영, 이숙(1998). 유아의 사회적 적응과 관련변인간의 인과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6(10), 65-78.
- 유우영, 최진아, 이숙(1998).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6(1), 51-61.
- 윤현선(2002). *국내입양부모의 사회적 지지와 부모역할수행자신감, 가족적응력 간의 관계: 자조모임 참가 입양부모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 이지원(2003). 영유아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관련 요인. *한국모자보건학회지*, 7(2), 207-216.
- 장영애(2003). 취학전 아동 어머니의 자녀양육 스트레스 연구: 농촌주부를 대상으로.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14(1), 1-12.
- 전춘애, 박성연(1996). 자녀양육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4(5), 115-129.
- 전춘애 · 박성연(1998). 어머니의 자녀양육 스트레스와 관련된 심리사회적 변인들.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6(1), 95-105.
- 최정미, 우희정(2004).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관한 연구. *한국생활과학회지*, 13(3), 361-369.
- Barth, R., & Berry, M.(1988). *Adoption and disruption: Rates, risks, and*

responses. New York: Aldine de Gruyter.

Berry, M.(1990). Stress and coping among older child adoptive families. *Social Work & Social Sciences Review*, 1(2), 71-93.

Bird, G. W., Peterson, R. & Miller, S. H.(2002). Factors associated with distress among support-seeking adoptive parents. *Family Relations*, 51(3), 215-220.

Crnic, K. & Acevedo, M.(1995). Everyday stresses and parenting. In M. H. Bornstein (Ed.), *Handbook of parenting* (pp.277-297). Mahwah, NJ: Lawrence Erlbaum.

Crnic, K. A. & Greenberg, M. T.(1990). Minor parenting stresses with young children. *Child Development*, 61, 1628-1237.

McGlone, K., Santos, L., Kazama, L., Fong, R., & Mueller, C.(2002). Psychological stress in adoptive parents of special-needs children. *Child Welfare*, 81(2), 151-171.

Mulsow, M., Caldera, Y., Pursley, M., & Reifman, A.(2002). Multilevel factors influencing maternal stress during the first three year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4, 944-956.

Smith, S. L. & Howard, J. A.(1999). *Promoting successful adoptions: Practice with troubled families*. Thousand Oaks: Sage Publications.

- 논문접수 2008년 4월 11일 / 수정본 접수 4월 22일 / 게재 승인 5월 13일
- 교신저자: 안재진, 육아정책개발센터 부연구위원, ahnjaejin@kicce.re.kr

ABSTRACT

Factors Influencing Parenting Stress of Adoptive Mothers in Korea

An, Jae-Jin

This study attempts to examine the factors influencing parenting stress of adoptive mothers in Korea based on the general parenting stress model with variables related to adoption added to it.

The secondary data used for the doctoral dissertation of Ahn, Jae-Jin (2008) was employed for the analysis. The data was collected from April to August of 2006 through three major adoption agencies in Korea including their local branches. Of total 279 cases, only families with children younger than 3 years were included in the analysis. Thus, a total of 240 cases were analyzed.

A hierarchical regression modeling was applied to investigate the relative effects of various factors specified in the model. The results of the hierarchical regression model indicate that child, parent, and family factors are stronger predictors of parenting stress than the adoption-related factor. The variables found to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parenting stress of adoptive mothers were age and self-esteem of adoptive mother, and support from family and relatives. The effect of child's sex was only marginally significant. Thus, the original model without the adoption-related factor seems to be more appropriate to explain parenting stress of adoptive mothers in Korea. The total explanatory power of the original model without the adoption-related factor is 21%.

Key Word : adoption, adoptive, mothers, parenting stress